

# 아픔 나누는 부처님오신날

## 전법도량, 흥법사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1080배 정진기도 길상사 삼계선원, 건강연등·자비라면으로 '나눔 실천' 등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 수행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연등과 라면을 전달하는 자비행사를 실천했다.

길상사 삼계선원 신도회는 4월 25일 김해사랑병원, 좋은금강도립병원, 김해중앙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의 1000여 입원환우에게 한 달간 정성스레 만든 연등과 떡 공양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빌었다.

올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연등 나눔 행사는 불교세가 약한 김해시에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인식을 심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시작된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2009년 1000개, 2010년 1300개, 2011년 1500개대로 매년 개수가 늘어 이제는 길상사 삼계선원의 문화포교의 중요 콘텐츠가 됐다.

삼계선원 주지 혜수 스님은 "작은 연등이지만 나누는 기쁨은 크다. 연등을 받아 기뻐하는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다. 연등을 직접 만들고 전달한 불자들이 환우들의 마음에 한 송이 연꽃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을 통해 종합병원 1000여 환우에게 연등과 떡 공양을 했다.

한 명의 환우에게 연등이 전달되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당을 참배하거나 신행활동에 참가한 신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둘러앉아 연꽃잎을 만들고, 연잎을 붙여 때로는 웃소매가 풀에 흠뻑 젖었다.

3년째 연등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순(44) 씨는 "연등은 바라보면 아담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연등을 받아들이고 행복해지는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고 환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연등 나눔 행사를 마친 다음 날에는 김해시청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250만원 상당의 라면 약 100여 상자를 기부했다. 라면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지낸 한 달간 공양간 한편에 세워진 라면함을 쌓아 모은 것이다.

혜수 스님은 "김해시는 옛 가야 불교가 크게 번성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불교세가 약해졌다"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절"을 모토로, 정형화된 수행과 정진을 위한 공간이란 이미지를 탈피해 어

른들을 위한 놀이터로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친숙한 도심포교도량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임 전법도량(의장 원허, 해원정사 주지)은 4월 25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 1080배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나눔 결사의 일환으로 23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와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에 이어 흥법사에서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울산 해남사 주지 만조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능인선원 주지 성각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해광사주지 해성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한 배 한 배 절을 울리며 병마와 고통으로 시름하는 어린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했다. 원허 스님은 "부처님께서 실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수행과 정진을 위한 공간이란 이미지를 탈피해 어

른들을 위한 놀이터로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친숙한 도심포교도량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임 전법도량(의장 원허, 해원정사 주지)은 4월 25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 1080배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나눔 결사의 일환으로 23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와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에 이어 흥법사에서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울산 해남사 주지 만조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능인선원 주지 성각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해광사주지 해성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한 배 한 배 절을 울리며 병마와 고통으로 시름하는 어린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했다. 원허 스님은 "부처님께서 실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수행과 정진을 위한 공간이란 이미지를 탈피해 어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울산 금어사 주지 지월 스님

## “600만배 기도 성취...지역민에 회향”

보통 108배를 한 다음 날이면 다리가 후들거리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한다. 그런데 이보다 5555배 많은 600만배 기도 성취 회향을 앞둔 스님이 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향 뒷산에 자리한 금어사 주지 지월 스님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00만배, 2009년 5월 500만배를 회향하고, 오는 6월경 600만배를 회향할 예정이다. 처음 300만배까지는 하루 3000배씩, 그 후 하루 1000배씩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홀로 절을 했다.



스님

“정진기도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수조라면 그 속에 가라앉은 찌꺼기와 쓰레기는 전생에 지은 업장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수조를 청소해야 하는데요. 처음 절을 하면 흙탕물이 일어나듯 마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그만두면 마진이 해방사주지 해성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한 배 한 배 절을 울리며 병마와 고통으로 시름하는 어린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했다. 원허 스님은 "부처님께서 실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수행과 정진을 위한 공간이란 이미지를 탈피해 어

습을 상상했지만, 이전의 근엄한 모습 대신 한 밤상에 둘러앉아 공양하는 친근한 주지스님으로 변해 있었다.

“약 80만 배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무릎이 아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떤 신도들에게 말뿐인 법문이 아닌 스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은 “격 없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니 이제는 신도들도 일상 속 사소한 문제도 상의할 만큼 편해졌다”고 말했다.

달라진 스님의 마음가짐에 따라 포교의 방향도 변모했다. 이전에는 신도들과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금어사 도량 안에서 참선수행을 이어왔다. 그런데 정진기도를 시작한 이후 산문 밖으로 나아가 인근 부대에서 7년간 일요일법회를 주관하고, 부산과 울산지역 도심 포교도량 청년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도 스님의 절 수행은 계속되고 있다. 5월 5일 금어사 만배전에서 지월 스님의 수행기를 담은 자서전 《인생을 절에 걸고》를 봉정사 및 출판기념법회가 개최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인 10월에는 법요식과 마을 제등행진도 진행된다.

“100만배, 300만배, 600만배 숫자를 세고 있지만 목표치를 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기도한 수행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단 한사람이라도 더 불자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할 것입니다.” (052)237-4325

박지원 기자

## 금정中, 다목적강당 개관

###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유물 전시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법인 금정학원(이사장 계전)의 종립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제)가 오랜 숙원인 다목적 강당 명정관(明正館)을 개관했다.

다목적 강당 명정관은 건축 면적 2423㎡(약 732평)의 1층 '명정관 박물관'과 2층 '학생식당' 3, 4층 최대 700명 수용 가능한 다목적 강당으로 설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과 부산시교육청 지원금, 법인 기부금 및 학교 발전기금 등에서 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2010년 8월 20일 착공 이후 6개월 만인 올해

2월 22일 완공됐다. 개관식은 4월 22일 명정관 3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개관식에서 현익제 교장은 “그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강당과 급식실이 없어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명정관 1층 명정박물관에는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및 급제 이윤근 선생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불자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외국인 스님이 전하는 '한국의 선(禪)'은?

금강승불무도 전수도량 해운대 반야원(주지 안도,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총재)은 4월 28일~5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선(禪) 정진대법회'를 개최한다.

다섯 벽안(碧眼)의 선객에게 듣는 한국불교와 참선 수행에 관해 법문을 청하는 이번 법회에는 4월 28일 미국 대진 스님, 5월 5일 미국 우봉 스님, 12일 폴란드 현문 스님, 19일 미국 대봉 스님, 26일 티벳 남카 스님 등이 차례로 법좌에 오를 예정이다. (051)701-5655

박지원 기자

## 청룡암 제13회 경로큰잔치 성료

울산 동대산 청룡암(주지 종현)은 4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봄맞이 경로큰잔치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결사'를 주제로 무차단 발 점심공양과 경기민요단, 고전무용, 대중가요, 풍물놀이패 등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주지 종현 스님은 “산천에 생명력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에 범행 가득하고 봄꽃이 만발한 청룡암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지장신앙 연구 '절실' 하다

'지장사상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법원원(총재 조연)과 한국정토학회(회장 도입)는 4월 23일 부산 일보 대강당에서 제14차 학술대회 열고, 지장사상의 전개와 특성, 신앙의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기조 발표 '지장사상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겸임교수 법공 스님의 '지장사상과 삼계교: (지장계) 경전' △동국대 청룡암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과 지장신앙의 특성' △동국대 겸임교수 정각 스님의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가 주제발표됐다.

도입 스님은 총평에서 “한국 불교의 신앙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근거한 관음신앙,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근거한 화엄신앙, 《경도삼부경》에 근거한 정토신앙, 《지장경전류》에 의거한 지장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불교학계에서 보살사상 가운데 지장신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장신앙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영축사 범일동 새 등지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영축사(주지 원산, 이하 예술대학)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 범일동에 새 도량이 문을 열었다. 예술 대학은 4월 24일 영축사에서 개원법회를 열었다. 영축사는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영산재 전문교육기관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해 사부대중에게 바라 및 작법무를 전수하고 있다. 예술대학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연중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불교 의식을 비롯해 부산 영산보존회에 등록된 바라 및 작법무 강의가 진행된다. 010-2563-5550

박지원 기자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전형 클릭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